

건강 칼럼

매일 아침 면도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싶다면?

한 번도 레이저 면도를 안 해본 사람은 있지만 한번만 레이저 면도를 해본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레이저 면도 후 면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해방감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여름이 다가오기 전 면도를 위해 성형외과를 찾았고 있다. 시술하는 부위도 예전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여성의 경우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시술하는 부위인 겨드랑이부터 종아리, 턱, 인중부위에서 최근에는 좁거나 답답해 보이는 이마의 헤어라인 제모 상담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인중이나 턱수룩한 턱, 구레나룻의 수염을 여름이 오기 전에 간편하게 정리하기 원하는 남성분들도 많다.

사실 성인들의 경우 제모는 누구나 하고 있다.

짧은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는 왁싱을 굳이 예로 들지 않더라도 아침에 일어나 세안하기 전 면도기를 잡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배 상 모 비에이성형외과원장

남성들이 많이 찾고 종아리나 겨드랑이 또는 눈썹을 한번도 다듬어 보지 않은 여성들은 드물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몸에 나는 털이 몸에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때로 보기 좋지 않거나 위생상의 이유로 우리는 성인이 된 이후 평생 제모를 해야 하는 숙명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면도기 날에 자주 피부트러블이 생기거나, 족집게 등을 사용해서 털을 뽑아내는 습관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제모를 시도해 볼 만하다.

면도기 등으로 인해 접촉성 피부염이 반복되거나 족집게로 털을 뽑아낸 뒤에 모낭염 등이 생긴다면 치료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거나 염증이 생긴 부위에 부분적으로 흉터가 남고 착색이 생기기도 한다.

레이저를 사용한 제모는 만족도가 매우 높은 시술이다. 통증도 다른 레이저에 비해 적고 시술 시간도 5분 내외로 짧으며 최근에는 비용도 예전에 비해 매우 저렴해졌다.

선택적으로 모낭과 모근 주변에만 에너지를 주어 털이 나지 않게 하는 제모 전문 레이저는 주변 피부에 자극이 덜하여 부작용도 미미한 편이다.

시술은 비교적 간단하다. 보통 시술 받을 부위의 털을 미리 정리한 뒤 통증의 경감을 위해 마취연고를 바르고 30분정도 기다린 다음 시행한다. 부위에 따라 걸리는 시간은 다르지만 보통 3~5분 정도면 시술이 끝난다.

레이저 시술은 1개월에 1번, 총 5회 받아야 하는데 1회 시술만으로도 그 전보다 나는 털의 양이 줄어들어 관리가 편해지지만 총 5회 시술을 받아야 1~2년정도 제모의 효과가 유지된다.

사람이 날마다 집에서 면도를 하기 위해 쓰는 시간을 평생 모두 합친다면 얼마나 될까?

그 시간과 노력을 자신을 위해 투자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한 달에 한번, 30분정도만 투자하면 매일 아침 좀 더 여유로운 출근 시간을 선물 받을 수 있다.

레이저를 사용한 제모에 관심이 있다면 꼭 제모를 위한 전문 레이저가 있는지, 전문의가 직접 시술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할 것을 권유하고 싶다.

사설

제조업체들의 형편 살펴야

제조업체들의 형편을 살펴야겠다. 도내 제조업체들이 증가세에 있다 고 하는데 그게 좀 이상하다. 불과 얼마전만 해도 도내 제조업체는 낙관적인 것이 아니었다. 제조업체들이 불어났다는 것과는 반비례로 대다수의 영세한 제조업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때와 다른 보고가 나오고 있으니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한다.

전북도는 비관적인 보고와 낙관적인 보고 사이에서 상황 파악이 정확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 당부하고 싶은 말은 도내 제조업체들의 실제 형편을 면밀히 살펴야겠다는 것이다.

도내 제조업체가 늘었다지만 50명 미만의 업체가 아직도 90%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언제 또 형편이 어려워지면 줄줄이 도산할 지 모른다든 염려를 갖게 한다. 지난 수년 간의 사례가 그럴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한 때 수출이 늘었다면서 발전의 증거가 아니겠느냐고 말한 사람도 있었지만 돈이 돌지 않는 우리 지역의 경제는 정체된 상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전북도의 입장이 어찌된 공금이다. 지금 중소기업인들은 체감경기를 안 좋게 느끼고 있다. 이게 당연한 현실이다. 도내 제조업체들에게 관심을 촉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동안 중소기업들도 지역 경제를 받쳐주는 대기업만큼이나 그 역할이 컸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가벼운 지원만으로 중소기업들을 고무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지난 날 어려울 때는 도내의 영세한 기업들이 한 달이 멀다 하고 줄도산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군산과 남원 등지에서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어 오늘 날이다. 영세 제조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면 마땅히 귀를 기울여 힘을 실어주어야겠다.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말해야

지역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말해야겠다. 그것도 강하고 힘차게 말해야겠다. 정부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지만 미흡한 게 적지 않다. 군산과 남원의 거둔 일자리 증발로 지역간 균형 발전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 더욱 신경 쓰이는 오늘이다. 정부는 지방분권을 말하고 있지만 실익이 없는 그런 것은 도민의 입장에서 마땅치 않다. 그동안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게 뻔하니까 말이다. 그 극단적인 사례로 새만금 농생명용지 전력지중화 사업을 자목할 수 있다. 그걸 국가사업에도 50%의 부담금을 내라는 기재부를 이해할 수가 없다. 주요 일자리는 외지업체가 싹쓸이 하도록 해놓고 그런 요구를 하니 말이다.

업들이야 오죽하리랴. 전북도의 청사진대로라면 전장에 마무리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터럭거리 는 모양새이니 답답하다.

전북도 관계자들은 이런 지적이 못 마땅할 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이 지적이 아주 틀린 게 아님은 분명하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지만 거북이 움직임을 그런 개념에 다른 지역과 비교해 한참 낙후돼 있다. 발전의 보폭이라는 게 다른 지역이 보여주고 있는 것에 비하면 너무 미미하다. 전역 국비사업에도 그걸 시범사업 못해 경제적 실익이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데 새만금이 전북 지역에 있으니까 부담금 절반을 떠넘기려는 것은 최근의 군산 GM 패싱을 생각할 때 어불성설이다.

전북도는 지역 현안들이 지지부진한 것을 짚어주어야 한다. 지원을 약속받은 사업들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역대 정부가 예산 편성에 인색한 탓이 컸다고 해도 이대로는 곤란하다. 전북도는 매년 같은 말을 되뇌어서는 안 된다. 고장의 오랜 낙후는 도민의 정서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말로만 현안사업이지 정체된 사업들이 아닐 수 없다.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사업이 저러니 다른 사

전북 지역의 오늘은 수 년 전과 비교해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따라서 지역 균형발전은 계속 요구해 마땅하다. 전북도는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겠다.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것들 투성이이다. 발전 보폭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 번 지적했거니와 전북도는 상체를 내밀고 힘차게 매진해야 한다. 정부로부터 후대를 받고 있음을 생각해 다른 지자체 만큼 개발사업이 저러니 다른 사

기자수첩

민평당 진안군수·도의원 후보자 공천에 군민들 '기가 막혀'

6.13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진안군에서는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군민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 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민주당에서 전라북도 의원을 두 번(6, 7대)이나 역임하고 오는 6.13지방선거에 진안군 3명의 도의원 예비후보 가운데 경선에서 3위로 도의원 후보조차 떨어진 사람을 민주당에 입당해 진안군수로 출마한다니 군민들은 기가 막혀 말을 못 하고 있다.

이번에 민주당에 입당해 진안군수 후보로 영입된 이충국 예비후보는 도의원



우 태 만 지방부 진안주제

예비후보 때 정치생활 30년을 오로지 민주당에 몸담은 지조를 지킨 정치인이었다며 지지를 호소하다 경선에서 탈락하자, 지지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기로 인해 병을 얻은 부인

의 병간호에 열중하겠다고 밝힌지가 보름도 지나지 않았다.

혹자는 정치인들은 숨 쉬는 소리 말고는 다 거짓말이고 지조 같은 것은 아예 믿을 것이 못된다고 하지만, 이런 사람을 후보로 영입하는 당이나 당에서 손을 내 민다고 덤씩 잡고 달려가는 사람, 진안군민들은 눈살을 찌뿌리며 바라보고 있다.

또 민주당이 이재선 도의원 예비후보는 어떤 사람인가? 김현철 진안군수 예비후보 사무장을 역임하면서 진안군의료원과 관련, 보건소 보건행 정계장 등 공무원 5명을 전북지방경

찰청에 고소 해 놓은 상태로 결과에 따라서는 법정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다.

도의원 후보 3명 중 경선에서 꼴찌를 한 사람을 군수에 출마시키는 것도, 고소 고발 잘 하는 사람을 도의원 후보로 내 보내는 것도 진안군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이 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민주당당은 심사숙고해 주기 바란다.

60년대 그야말로 보리 고개 시절에는 이웃집에서 여름에 보리를 베거나 가을에 벼를 베서 옮겨간 후에는 그 보다 못사는 사람들이 이삭줍기를 한다. 그러나 아무리 먹을 것이 귀해도 쪽정이는 굶지 않는다. 식량에 보탬이 안 되니까.

독자제언

교통사고 조치사항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추가하고, 추정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 발생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된다는 규정이 작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내용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후 인적사항 등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고 현장 이탈시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범칙금)을 부과한다는 사실이다.

주차장에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운전자는 최고 20만원의 벌금을 처벌받게 되는데, 운전자가 없는 추정차된 차량에 사고를 내고 사라져버리는 물피 도주는 특별한 처벌근거가 없었다. 물피 도주는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상에 차량소통에 장애가 발생해야 하는 것이 처벌의 근거였는데, 이처럼 주차장등에서 운전부주의로 가벼운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경우 이를 검거해도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운전 중 누구라도 부주의나 실수로 주차장이나 도로변에 주차중인 차량 훼손시켰다면 훼손한 차주에게 전화해서 알리고 조치를 취해야 처벌을 면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물피 도주' 처벌 받는다

이동민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Large graphic with a boat on waves and a sun/moon, containing text about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A forum for humans who give courage and hope). The text includes: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